



기획재정부

보 도 자 료

대한민국 대전환
한국판뉴딜

보도 일시	2022. 1. 19.(수) 16:00	배포 일시	2022. 1. 19.(수) 15:30
담당 부서	국고국 혁신조달기획과	책임자	과장 오현경 (044-215-5230)
		담당자	사무관 조선희 (whwns56@korea.kr)

'21년 혁신구매목표(5,477억원) 초과 달성(6,223억원) - 안도걸 제2차관,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실시 -

-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혁신제품 생산기업 (주)스타스테크를 방문하여 기업, 전문가, 공공기관이 참석하는 혁신조달 간담회를 개최하고, 이어서 혁신제품과 연구시설을 살펴보았음
- 이번 현장방문·간담회는 우수 혁신제품을 개발한 기업과 혁신제품 공공구매에 앞장선 공공기관을 격려하는 한편, 혁신조달 정책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하였음

<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·간담회 개요 >

- 일시 및 장소: '22. 1. 19.(수) 15:00~16:00, (주)스타스테크(서울시 구로구)
- 참석: (공공) 기획재정부 2차관, 조달청, 한국도로공사, 한국수력원자력
(민간) 양승찬((주)스타스테크 대표), 안건준(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), 박상철(한국조달연구원 부원장), 김세중(이노비즈협회 부회장)

- (주)스타스테크는 해양폐기물인 불가사리를 활용하여 '친환경 제설제'를 개발한 혁신제품 생산기업으로 '21년 매출 171억원(공공조달 128억원)을 달성했고, 캐나다 정부(알버타주 등)와 실증 완료 후 납품 협의를 진행 중임

<(주)스타스테크 혁신제품 사례>

제품명	제품사진	제품 설명 및 공공서비스 개선 사례
친환경 제설제 (주)스타스테크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불가사리 추출성분을 이용한 친환경 제설제 ▶ 도로 파손, 차량 하단 부식 등 환경오염 문제 해결 ▶ 해양생태계 피해(양식장 등) 최소화, 소각 비용 등 예산 절감


- 안도걸 차관은 간담회에서 “(주)스타스테크는 혁신조달이 기술 창업을 육성한 대표 사례로 판로가 부족한 혁신제품에 대해 공공이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, 이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과 사회적 가치(친환경)를 실현했다.”고 평가하였음
- 또한 정부가 (주)스타스테크와 같은 제2, 제3의 ‘혁신조달 성공 모델’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조달 정책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음

- 아울러 안도걸 차관은 정부가 혁신제품 지정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 등 혁신조달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, '21년 혁신구매목표(5,477억원)를 초과 달성*(6,223억원)했다고 발표하였음

* (목표) 5,477억원('20년 <4,173억원> 대비 +31%) → (실적) **6,223억원** (114% 초과달성)

- ① 혁신제품 지정절차 개편을 통해 '뉴딜 혁신제품(97개)' 등 주요정책 연계 제품을 발굴했고, 제품 수를 '20년 345개에서 총 968개(+623개, +180%)까지 확대하여 혁신제품의 양과 질을 모두 제고하였음

<혁신제품 주요 사례(뉴딜 혁신제품)>

제품명	제품사진	제품 설명 및 공공서비스 개선 사례
확장형·이동식 음압병동		▶ 모듈 간 자유로운 결합·확장·이동이 가능한 음압병동 ▶ 경기도의료원·원자력병원 등에서 활용되어 코로나19 대응에 기여

- ②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잠재적 혁신조달 수요를 발굴하는 '인큐베이팅' 및 전문가(벤처협회 등)를 통해 유망 조달기업·혁신적 제품을 발굴하는 '스카우터'를 본격 운영하여 적극적 조달시스템을 활성화하였음

※ 인큐베이팅·스카우터 성과 및 주요 사례

- ▶ (인큐베이팅) 공공문제 발굴-과제화-solution 탐색 등 혁신조달연계 컨설팅 지원 → 환경분야 공공문제 19건 발굴, 공모를 통해 '옥상 노면 태양광 모듈' 등 혁신제품 지정
 ▶ (스카우터) 전문가 그룹이 유망기업 제품을 발굴하여 혁신조달연계 컨설팅 지원 → 35건의 유망기업 제품 발굴 및 '액체생검 암 진단패널' 등 혁신제품 지정

옥상 노면 태양광 모듈(인큐베이팅)		액체생검 암 진단패널(스카우터)	
	▶ 기존 제품보다 경량화 → 공공건물·도심內 태양광 부지 부족 문제 해결 * '공공건물 탄소중립' 과제 공모 제품		▶ 혈액으로 암 진단 정밀의료 제공 → 기존 조직검사 대비 신속·간편 * 바이오헬스 분야 VC 전문가를 통해 발굴

- ③ 조달의 날('21.9.30)·경진대회('21.12.15)를 통한 홍보 및 유공포상 수여 등 혁신조달 인센티브를 확대했고, 국민평가단 운영(유공포상 대상 선정 등)·국민제시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였음

- ④ 한국도로공사, 한국수력원자력 등 개별 기관에서도 혁신조달 협의체 구축, 자체 구매수요 조사 등을 통해 혁신제품을 적극 구매하였음

- 한국도로공사는 '21년 혁신구매목표(84억원)의 245%인 207억원의 실적을 달성했고, 한국수력원자력은 '21년 목표(74억원)의 235%인 175억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음

- 안도걸 차관은 “정부는 앞으로도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(first buyer)가 되어 혁신제품 생산기업의 초기판로를 개척하고,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.”고 밝히며
 -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'22년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확대하도록 당부하였음
- 끝으로 안도걸 차관은 “혁신조달 정책의 성패는 ‘민간의 아이디어·도전’과 ‘공공부문의 뒷받침’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달려있다.”고 말하며
 - 정부는 ‘선도적 수요자’로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기업에게 테스트베드를 제공하여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국내 조달시장을 넘어 해외 진출까지 도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,
 - 앞으로도 혁신조달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언과 함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건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함

